

a+u



Kerry Hill—crafting Modernism in
Asis Pacific

이번 2009년11월호 a+u(470호)는 모더니즘을 작품세계의 기조로 시대, 대지 그리고 문화라는 문맥안에서 지속적인 작품탐구를 추구하는 Kerry Hill의 작품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세계각지에 있는 그의 작품 중에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나 공적건축물 등 여러타입의 건물을 소개한다.

그 중에서도 주요작품인 Bhutan의 Amankora, 인도의 ITC Sonar Bangla와 Aman New Delhi를 최근사례로 소개한다.

이러한 작품소개와 함께 3가지의 Article를 수록 했다. Geoffery London은 그의 에세이 「An Evolving Practice 진화하는 실천」에서 Kerry Hill의 경험과 그의 디자인의 변천과정을 다루고, 또 Erwin J.S.Viray과의 인터뷰에서는, Kerry Hill의 공간구성과 부지상황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싱가포르 신진 건축사 3명과의 좌담회에서는 싱가포르의 건축이 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Soi 53 Apartments—Bangkok, Thailand
2002~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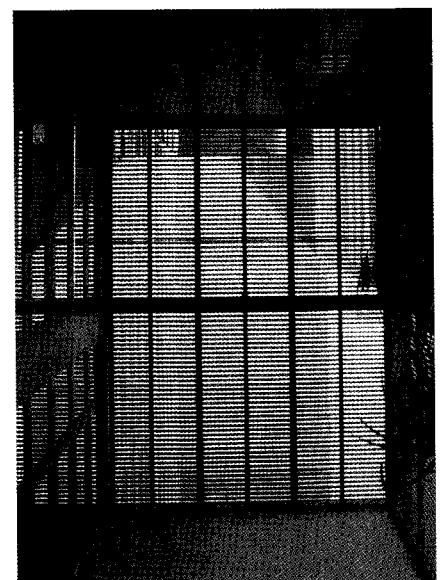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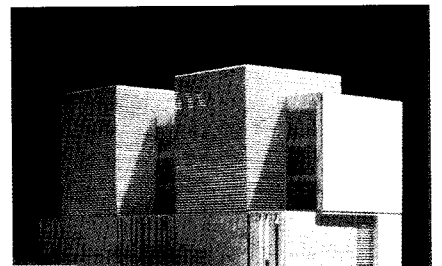
부지는 Bangkok의 변화가 Sukhumvit 대로에서 들어간 작은골목, 즉 현지말로 하는 '소이(Soi)' 에 면하고 있다. 작품의 개요는 넓은 맨션 형태를 취한 4개의 집합주택이며, 한세대는 소유주가 살고 나머지 3세대는 성인이된 자식 3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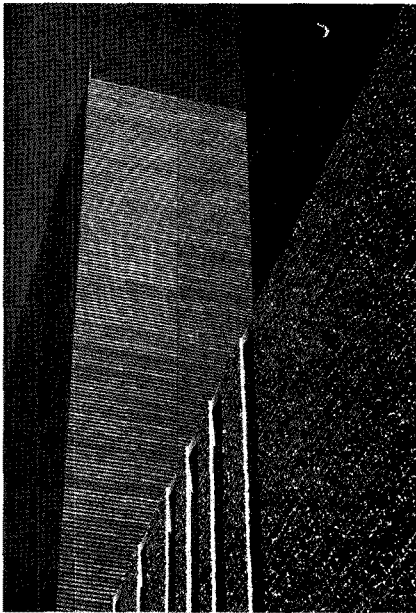
이러한 대가족 전용의 다세대 주택을 도심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수직으로 적응구성이란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 되어왔다.

1층은 공공부분으로서 2층 높이의 석벽으로 둘러 쌓여 있지만 부분적으로 하늘을 향해 오픈되어 있다. 석벽안쪽으로는 완전한 사적 영역이 구성되어 있다. 거기에는 키폴장, 공용 다이닝 테라스, 체육관, 현관 등이 조성되어 있다. 벽에 수직으로 뚫어진 틈을 통해서 계산되어진 양의 빛이 새나온다.

위층에는 사각볼륨의 형태를 취하는 주거세대가 있다.

사각볼륨의 세변에는 작은 오픈닝으로 천공된 조석벽이 둘러싸다. 나머지 한 변은 투명한 유리로 거실과 침실이 배치된다. 세대





구성은 복층형식을 취하면서 수직적 공간연계를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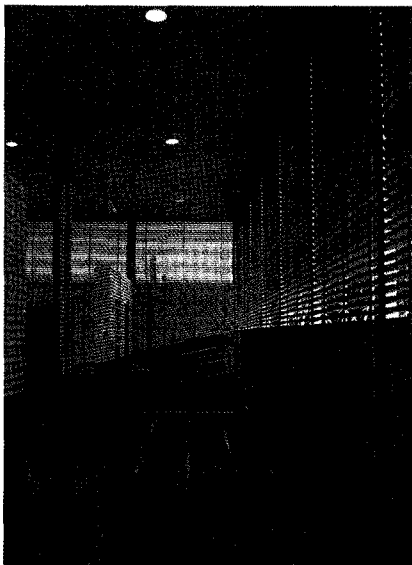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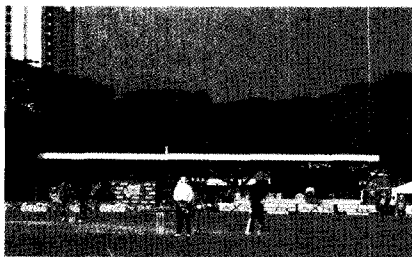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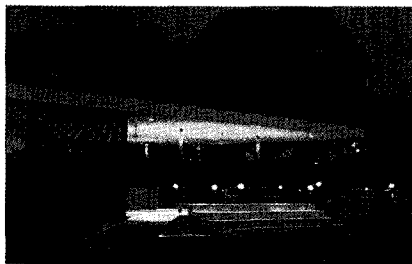
2층 높이의 옥외 테라스는 각 세대내 거실을 외부로 연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소나무 원목으로 덮여있는 스크린 테라스는 풀장위에 걸려있으면서 1층 공공부분과의 시각적인 연결을 도모하면서 세대의 투명한 입면에 대해 차양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테라스블룸은 위층세대의 옥상까지 이어지면서 보다 친숙한 분위기에 테라스 말하자면 '사라(타이풍 정자)'와 같이 된다.

Singapore Cricket Association Pavi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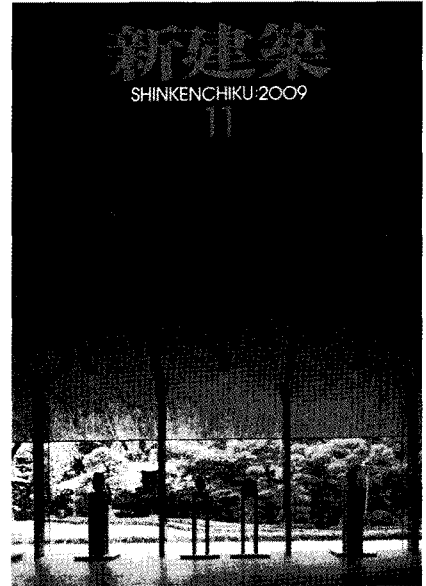
파빌리온의 배치는, 크리켓 광장 방향으로, 관객들이 크리켓 필드(Cricket Pitch)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사이트 스크린(타자에게 볼이 잘 보이도록 설치된 흰색 판)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놓치는 일이 없게끔 되어있다. 우연히도, 파빌리온 그 자체가 기존 수림대와 잘 어우러져 있는 한편, 가로 스카이라인은 크리켓 경기장에 대해 극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파빌리온은 2개의 수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떠있는 듯 보이는 지붕의 큰 수평면이고, 또 하나는 지면에 깔려져있는 한판의 기단이다. 이러한 수평면의 사이에 세장한 십자형의 철제기둥, 목재 스크린으로 둘러 쌓

인 탈의실, 사무실, 선수용 슬로프, 단상 형식의 콘크리트의 좌석 그리고 입구의 계단이 조각적인 요소로서 짜 넣어져 있다. 흰 금속제의 처마를 따라 파빌리온의 최상부는 부유하는 평면과 같아 보며, 조금은 경사진 금속제의 지붕을 숨기고 있다. 이러한 처마는 빗물에 의한 오염을 피하기 위해, 옥상의 배수로로 부터 이격되어져 있다. 탈의실을 둘러싸는 수평의 목재 스크린은 자연환기와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자인 되어 있으며 정오에는 면으로서 보이지만, 황혼시에는 행동과 같이 내부의 빛을 투과 시킨다. 기단부와 실사이에 설치한 목재판에 의해 경기장 선수들의 게임진행을 관람할수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또한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파빌리온은 크리켓 경기장의 중심이지만, 저녁에는 시합후의 축하무대로 크게 변화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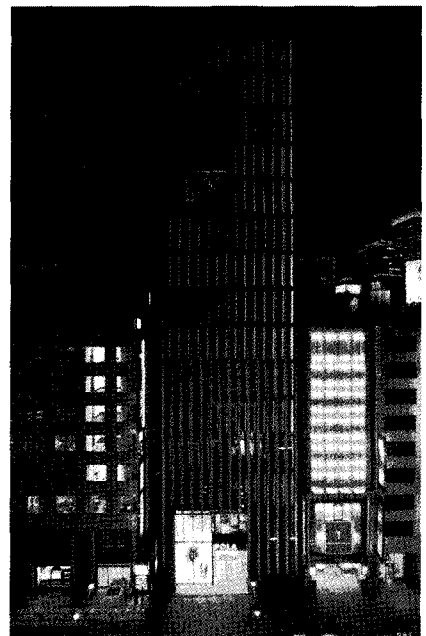


新建築



PLOA 긴자 빌딩

architect : NIKKEN SEKKI + YASUDA ATELIER



새로운 플래그십(flagship)

POLA 긴자빌딩은 1960년 준공되어진 옛 플라 긴자빌딩을 재건축, 창업80주년을 기념한 플래그숍으로 계획되었다. 국내외의 스파브랜드가 집적해 그 매력을 높이고 있는 긴자 지구에 있어, 긴자 중심부의 활기찬 교우하시(京橋)측에 연결하는 긴자 일점목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 되고자 했다. 주변

은 향후 개발이 많이 전망되는 지역으로서, POLA 긴자 빌딩은 그 선구적 존재가 된다.

세가지의 미(美)

POLA가 내건 새로운 빌딩의 테마인 미용(美容), 미술(美術), 미식(美食)이라는 3개의 미(美를) 포함해, 사람의 피부를 빛나게하는 근원적인 존재인 물(水)과 빛(光)을 주요 컨셉트 삼았다. 거기다가 한층 더 생명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로서 시간(時)의 경과와 함께 새기고 변화해 나가는 건축을 목표로 했다. 건축이라고 하는 정적인 구축물로, 변화와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이중외피(Double Skin)내에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의 가동(可動)패널과 모든 색채의 표현이 가능한 LED 조명을 편성, 건물의 표정이 스스로 변화 되게끔 했다.

긴자¹⁾까지 이어지는 높이 66m의 이중 외피는 긴자 거리를 향한 연출장치임과 동시에 그 드래프트 효과를 이용해, 남향건물의 열 부하를 경감 하는 환경 장치로도 기능하고 있다. 1층은 플라 더 부티의 플래그십과, 지하 1층의 에스테틱은 건축주 요구에 의해 Jean-Philippe Nuel의 인테리어디자인으로 새로운 플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내고 있다. 3층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플라 뮤지엄 어빅스가 설치되는 것 외에 엄선된 레스토랑과 숍이 입주해 문자 그대로 미용·미술·미식을 구현하는 건물이 되고 있다. POLA 창업 80년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새기는 그릇으로서, 백자와 같이 높은 기품과 능률한 자세로 거리풍경을 이루고 있다.

움직이는 파사드(Facade)

긴자 중앙거리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

수직선을 강조한 빛의 탑

긴자라고 하는 도시의 장래상을 응시해보자면 가까운 장래에는 활기찬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점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건물의 얼굴이 되는 중앙거리에 접하는 입면을 가장 중시해, 긴자의 거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의도했다. 파사드에 대해서는 수직선을 강조한 스트라이프 이미지를 설계초기단계부터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빛의 피가 하늘을 향해 똑바로 뻗어나가는 강력한 이미지를 발현하는 것이된다. 바깥쪽에 300mm 폭의 알루미늄 압출소재를 이용한 샷시와 투명 유리의 심플한 이중외피가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유리후면으로 180매의 반투명 키네틱 패널을 매달아 지상에서 하늘까지 외관 전체를 다메우고 있다.

세포 이미지의 패턴

패널은 두께 12mm, 길이4m의 폴리카보네이트로서 세포 이미지를 연상케하는 크기와 농담이 다른 패턴을 양면 인쇄한 후 공장에서 하트형으로 절곡시켜 가공 제작하게끔 했다.

패널의 회전 구동은 자동경첩과 모터 연동의 힌지roller의 조합시킨 단순한 가동 기구를 신규 개발했다.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패널은 부유감이 있어 당장 움직일 것 같은 기운이 감돌게 된다. 낮시간대에는, 반 투과외피는 동남쪽에서의 강한 빛을 부드럽게하는 차양 스크린으로서 유효하게 움직이고, 평상시에는 베네시안블라인드 등으로 빛을차단하면 시각적는 거리와 차단되어 버리지만 실내에서는 긴자라고 하는 거리를 가까이에 느낄 수 있다. 이중외피와 패널의 조합에 의해서 사람의 피부와 같이 내부 환경을 지켜 에너지 절약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살아 있는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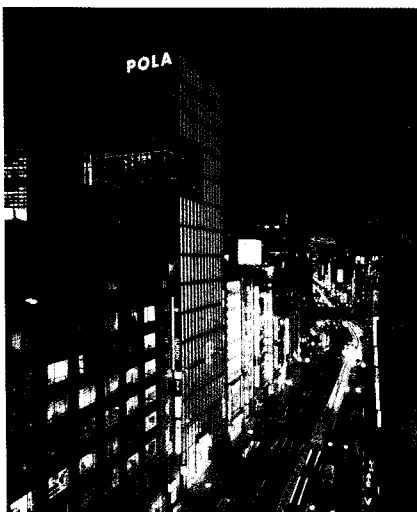
한편, 야간에는 LED 조명이 패널을 비쳐 파사드 전체를 화이트블루톤의 부드러운 표정을 도시에 제공 한다. 게다가 패널의 움직임과 빛의 움직임에 의해 외관이 마치 살아있듯이 그 표정을 변화시켜 긴자에 새로운 빛의 탑을 창출하는 것을 의도했다.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심쉬는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강한 사람의 피부를 상기시켜, 생생하게 한 메시지를 거리에 전달하는 파사드를 목표로 했다.

와세다 대학 이공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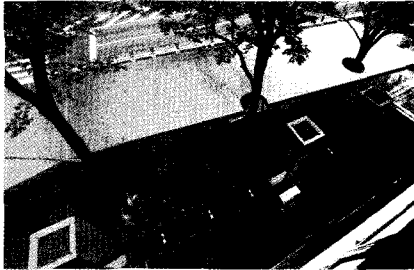
architect : NOBUAKI FURUYA+NASKA
X KUME SEKKKI

느티나무와 일체화된 휴식공간

대학도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므로, 수업을 위한 교실과 복도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40년전엔 이 캠퍼스를 설계한 안도 카츠오(安東勝男) 교수는 메이지(明治) 거리쪽에는 학부생 전체 학생이 모일 수 있는 강당을 구상했다. 그 후 실제로는 대학원생수의 대폭적인 증가 등에 의해 주된 연구실동인 65호관이나 55호관이 지어지고, 게다가 작년 6월에는 지하철부도심선도 개통되어, 그 출구도 여기에 신설 되었다. 이를테면 동쪽의 새로운 메인 엔



1) 각 긴자지구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1988년 용적률과 건축물높이제한, 벽면후퇴 규정 등을 정하여 지구계획, 그후 도시재생특별배치법이 규정되어 긴자지구에도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나타나면서부터, 2006년에 '긴자'를 부터 건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생겼다. 전면도로의 폭원에 따라 높이가 결정되어지고, 2009년 10월현재 규제범주의 건물은 높이 56m, 옥상공작물 10m(합계66m). POLA긴자빌딩은 이에따라 높이가 정해졌다.



트런스가 된 것이다.

원래 정면 입구는 캠퍼스 중앙의 남쪽에 있지만 사람들의 출입은, 실질적으로 전철(JR, 서식, 신주쿠 선) 등의 서쪽과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동쪽에서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사람이 출입이 잦은 곳은, 자연스럽게 휴식할 공간을 생각할 것이다. 거기서 구상한 것이 서쪽의 63호관 1층의 레스토랑과 이곳 동쪽의 카페이다. 레스토랑에는 공원에 접하는 갤러리 스페이스가, 그 카페에는 기존 55호관의 아트리움(atrium) 공간이 접속하고 있다. 건축학과의 과제 작품 품평회 등을 여는 곳이다. 양자 모두 광장에 접하는 카페나 레스토랑과 같은 관계가 된다. 기존 건물과 도로의 사이의 몇 안 되는 빈터에는 훌륭한 노티나무가 서 있었다. 디자인적으로 이것을 건축과 일체되게끔 하고 싶어서, 콘크리트 밖에 가능하지 않은 조형을 생각해 나뭇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관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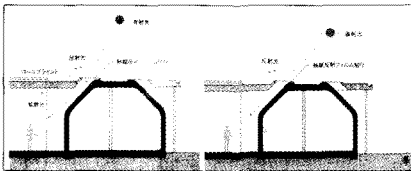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도로에 접하는 세장한 뼈기장의 실내 공간과 나무 그늘의(Open deck) 공간이 태어나게 되었다. 유리가 접혀 문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인해, 나무와 데크와 실내의 모든 것이 일체화 된다. 타카사키 시립 사쿠라야마 초등학교(高崎市立山小學校)(본지 0907)에 이어서, 여기에도 우리가 고안한 알루미늄 자연 환기장을 설치하였다.

지정(志井)의 크리닉

architect : NORIKO+KAORU
SUEHIRO/NKS ARCHITECTS

채광과 공조 부하의 제어

안 길이가 깊은 큰지붕 아래로 채광시키기 위해, 지붕과 오두막의 사이의 틈새를 톱라이트로 처리했다. 톱라이트는 여름철 열 부하가 문제가 되지만, 슬릿한 형태로 필요한 빛을 효과적으로 취하면서도 면적을 억제, 열선 반사 필름과 블라인드에 의해 일사 조정을 하게 된다. 부지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창은 열 수 없다. 그 때문에 환기는 외부 공기 처리기를 경유해 내부로 이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천정 부근의 공기를 움직이지 않게하는 효율적인 치환 공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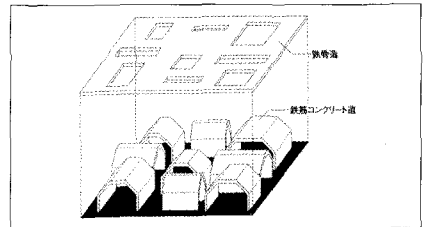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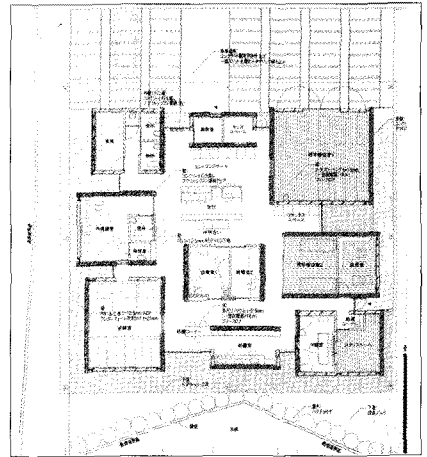


9개의 오두막

시가지와 시골의 경계에 위치하는 크리닉 계획이다. 시골풍경과 산세경관을 방해하지 않게 높이와 스케일감을 누른 심플한 건물을 목표로 했다. 건물의 구성은 사다리꼴 단면을 한 오두막과 같은 9개의 실을, 거의 정방형의 큰지붕과 일체화하는 형태로 했다.

깊숙한 건물의 중앙부에도 자연광을 이끌고 있다. 각각의 오두막의 배치는 필요에 따라서 크기나 배치방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오두막끼리의 틈새가 미로 상에 전개되는 통로가 되어, 열려진 장소가 대합실이 되었다. 9개의 오두막은, 각각 구조적으로 독립하고 있다. 방향에 따라서 강성이 다른

오두막을 교대로 90도 회전해 배치하는 것으로, 지붕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했지만, 이것이 동시에 실내 공간의 빛의 도입되는 방법이나 시선의 미치는 방법을 컨트롤하고 있다. 낮에는 톱라이트로부터 들어온 자연채광이, 오두막의 지붕면에서 일단 반사하고 나서, 간접적으로 오두막 가운데까지도 비추어, 밤은 각각의 오두막으로부터 빠지는 빛이 통로 부분에도 내비치게 된다.



효율보다 용장성(元長性: 쓸데없이 깊)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평면 계획이 중요한 테마가 된다. 그러나, 여기의 동선은 최단거리라고 하는 효율보다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장성을 가진다.

진료 내용이나 환자수의 변화, 또 장래의 실의 기능 변경에 대해서도 유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큰지붕 아래에 배치된 오두막 사이를 보고 있으면, 작은 취락의 골목과 같이, 인간적 스케일에 싸이고 슬릿을 통해 계절이나 때와 함께 변천하는 하늘의 색이나 빛의 양자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이,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